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00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5. 4. 30.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2025년 실학박물관 추사연합전 개막식 개최 “추사 김정희, 경기도에서 다시 깨어나다”		6	있음	https://silhak.ggcf.kr	부 서 : 학예연구팀 사업담당 : 이성연(579-6010) 홍보담당 : 구준모(579-6011)

“추사 김정희, 경기도에서 다시 깨어나다”

▶ 《추사, 다시》, 전통과 현대를 잇는 타이포그래피 전시

▶ 2025년 4월 30일(수) 15시, 실학박물관에서 전시 개막식 개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4월 30일(수), 조선 후기 예술과 사상의 거장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를 현대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 재해석한 특별기획전 《추사, 다시》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미자 경기도의원(남양주),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행사는 25현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 명인의 공연과 전시 개막 퍼포먼스, 전시 해설 투어 등 풍성한 볼거리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추사, 다시》는 실학박물관과 과천 추사박물관, 제주 추사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합전시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독창적인 문자 조형 세계를 현대 시각예술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실험적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세한도> 영인본과 함께 <소봉래의 난>, <유희삼매> 등 추사의 대표작이 전시된다. 특히 <세한도>는 14.7미터 길이의 두루마리 원본 전체가 펼쳐져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2부에서는 동시대 디자이너들이 추사의 조형언어를 타이포그래피로 재해석한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총괄은 석재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맡았으며, 참여 작가로는 한글 서예가 강병인, 레터링 디자이너 김현진, 디자인 듀오 양장점, 책 디자이너 함지은, 실험적 그래픽 그룹 DDBBMM이 함께했다. 이들은 추사의 사상과 조형 세계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문다.

석재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추사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 문자 조형의 유산이 현재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 한 줄 평을 통해 전시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한글 조형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었다."(작가 강병인)

- "글자를 반복해서 그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자유롭고 일탈적인 형태를 탐색해 나간다. 관객이 익숙한 문자 속에서 낯선 생명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작가 김현진)

-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장을 발로 딛고 사유를 확장했던 김정희의 학문적 태도처럼 기억과 기록, 형식과 본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는 이에게 질문을 던진다."(작가 함지은)

- "오늘날의 활자 디자인이 입체 조형과 뿌리를 공유한다는 관점을 시각화했다. 손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글자의 형태는 이제 구조와 비례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시각 조형물로 진화한다."(작가 양장점)

- "고무도장 작품이다. '시서화'와 전각에 깊은 조예를 보인 김정희가 고무도장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면, '시서화인'의 일치를 지향하며 도장에서도 서예적 조형 실험을 시도했을 것이다."(작가 DDBBMM)

<김정희 대표작>

세한도(歲寒圖)

유배지 제주에서 그려진 세한도는 추사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 작품은,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개와 의리를 담은 상징적 수목화입니다. 단순한 그림을 넘어, 진심어린 감사와 사색의 깊이를 담은 문인화의 결정판입니다.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불교적 선(禪)의 경지와 난초가 둘이 아님을 밝힌 '경계를 허문 불이선란不二禪蘭'은 불교적 초월 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추사의 사상적 경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이(不二)란 모든 이분법을 넘어선 하나됨의 경지를 뜻하며, 이 그림에는 선(禪)의 정수와 추사의 자유로운 필치가 담겨 있습니다.

잔서완석루(殘書浣石樓)

사라지고 남은 글씨와 험하게 깨진 빗돌이 있는 누각이란 의미로 글씨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되살리고 있다. 절제된 서체 속에 담긴 향수와 학문적 열정은, 조선 문인의 이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야(史野)

사야는, 사(역사적 사실) 야(비공식적 이야기)라는 뜻으로, 기록과 기억 겉모습과 내용을 의미한다. 추사의 사상적 깊이를 드러냅니다. 기운찬 필획은 마치 자연과 호흡하듯 생동합니다.

유희삼매(遊戱三昧)

어떠한 곳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뜻하는 이 작품은, 자유와 해탈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격식을 벗어난 유연한 서체는, 예술을 삶처럼, 삶을 예술처럼 살아간 추사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실학박물관, 과천 추사박물관, 제주 추사관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 문화를 반영해 김정희의 유산을 다층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과천시 등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 디자인 언어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시도 중 하나로, 실학의 철학과 추사 예술이 지닌 조형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인터뷰에서 “실학박물관은 실학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실학의 현재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에는 글로만 구성된 백과사전 『자산어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국의 발달장애 작가들과 함께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특별기획전을 가졌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추사, 다시》 전시를 통해 독창적인 서예가로 명성을 떨친 김정희의 서체인 ‘추사체’와 현대적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를 엮어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는 실학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6일(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관련 상세 정보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https://www.ggcf.kr>) 또는 실학박물관 누리집(<https://silhak.ggcf.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 031-579-6010

■ 전시 개요

- 전 시 명: (국문) 《추사, 다시》
(영문) Chusa, Revisited
- 전시기간: 2025. 4. 30.(수) ~ 2025. 10. 26.(일)
- 전시장소: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지 16)
- 참여작가: 강병인, 김현진, 양장점, 함지은, DDBBMM
- 전 시 작: (신작) 참여작가의 평면 및 입체 작품 7여점
(추사 김정희) 원본: 소봉래의 난
영인본: 세한도, 불이선란도
디지털 복제본: 잔서완석루, 사야, 유희삼매, 난맹첩 일부 등
- 주 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 관 랐 료: 무료

■ 연계 전시

이번 전시는 실학박물관을 비롯한 과천 추사박물관, 제주 추사관이 협력하여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다른 접근으로 다채로운 전시 기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경기를 비롯한 지역간 문화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과천 추사박물관

- 전시제목 : 2025 추사 연합전 '추사를 품다'
- 전시기간 : 2025. 5. 10.(토)~10. 31.(토), 과천시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 추사의 대표작과 그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추사서화파'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아울러 추사의 예술세계를 모티브로 한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추사 예술세계의 창조적 계승을 살필 수 있게 한다.
- 주요전시물 : 추사 말년 작품으로 '한예일자(漢隸一字)', 추사 제자 조희룡의 '묵란도' 현대작가 과지초당(이동원 작가), 불이선란(이관우 작가) 등

○ 제주추사관

- 전시제목 :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련
- 전시기간 : 2025. 7. 8(화)~2026.1.11.(일), 제주추사관 4전시실
- 전시내용 : 조선후기 화가 허련은 김정희의 제자이다. 그는 산수화로 유명했고, 스승의 초상을 그린 인물이다. 현전하는 그의 작품을 선별하여 허련의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 주요전시물 : 소치 허련의 산수화 16점, 벽계청장관, 완당선생초상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https://www.ggcf.kr/>)과 실학박물관 누리집(<https://silhak.ggcf.kr/>)을 참고

※ 붙임 1. 개막식 사진

2. 추사 김정희 작품
3. 작가의 신작 사진
4. 전시장 사진
5. 전시 포스터

1. 개막식

		
▲ 테이프 커팅	▲ 전시공연	▲ 전시설명

2.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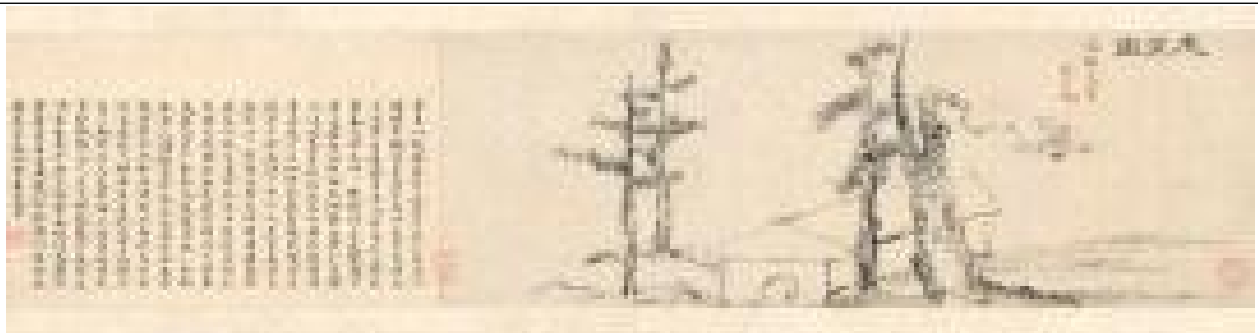


▲ 전시장 1



▲ 전시장 2

3. 추사 김정희 작품



(고용량 원본)

세한도歲寒圖 19세기 | 제주추사관, 영인본 | 국보

이 그림은 김정희가 제주도 귀양 시절인 1843년 겨울 역관 출신 제자 이상적 李尙迪(1804~1865)에게 그려준 수묵 화이다. '세한歲寒'의 뜻은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논어>)라는 뜻으로 권세와 이익에 휩쓸리는 세상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묘사했다. 유배와 있는 스승에 대해 변치 않는 의리를 보여준 제자 이상적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세한도>는 서화일치書畫一致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선비의 지조와 절제미를 보여주는 명작이다.



불이선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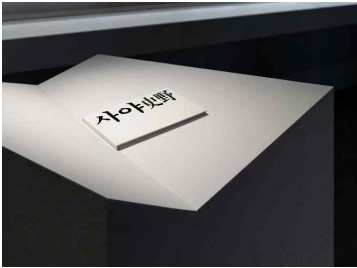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1850년대 | 국립중앙박물관, 복제 | 보물

불교적 선禪의 경지와 난초가 둘이 아님을 밝힌 '불이선란不二禪蘭'은 불교적 초월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김정희가 북청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과천시절 달준 達俊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김정희가 지향하고 있던 이상적인 난초 그림의 경지를 실현하고 있고, <세한도>와 함께 추사 예술의 정수로 평가된다.

	소봉래 난 小蓬萊 蘭 19세기 실학박물관
소봉래 난	이 그림은 난초에 화제書題를 쓴 묵란화이다. 소봉래는 예산 추사고택 뒷산 오석산이 금강산처럼 경치가 빼어나다고 하여 부른 이름으로 김정희 자신을 가르키는 호이기도 하다. 화제에서 언급한 수월水月은 임희자林熙之(1765~?)로 대나무와 난초를 잘 그렸던 역관 출신의 문인이다.

4. 작가의 신작

	〈늘 푸르른 숲〉, 〈잔서완석루〉
강병인	강병인의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한글 조형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늘 푸르른 숲〉은 세한도에 담긴 사유를 바탕으로 한글 & 숲 & 자를 소나무의 성장 구조에 맞춰 해석한 작품이다. 하늘(人), 사람(人), 땅(地)을 조합해 문자 속 생명성을 시각화한다. 〈잔서완석루〉는 추사의 독창적인 글줄 구성 방식을 따르되, 한글 자소 배열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며 필획의 밀도와 울동감을 실험적으로 표현한다.
	〈유희삼매 遊戲三昧〉, 〈괴 怪〉
김현진	유희삼매(遊戲三昧)는 추사 김정희의 서첩 「완당집고첩(阮堂執古帖)」 첫 장의 글씨로 어떤 것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게 노니는 경지를 뜻한다. 김정희의 글자들은 마치 놀이의 경지에 이른 듯한 자유로움을 지니며, 때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질 만큼 역동적이다. 그의 '괴(怪)'의 미학은 단순한 기괴함을 넘어, 글자의 조형성 실험을 통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작업은 '괴의 미학'을 계승하고 재해석하려는 시도이자, 글쓰기를 유희로 전환하는 실험이다. 글자를 반복해서 그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더 자유롭고 일탈적인 형태를 탐색해 나간다. 점차 읽히기 위한 글자로써의 형태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 생명체 같은 형상으로 변모한다. 그것들을 마치 해부학적 표본처럼 전시함으로써, 관객이 익숙한 문자 속에서 낯선 생명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사야 史野〉 〈사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추사의 작품 〈사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작품이다. 공자의 『논어』 「용야편」에 등장하는 구절을 바탕으로, 형식과 본질의 조화에 대한 사유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내용이 겉모양을 능가하면 투박하고, 겉모양이 내용을 능가하면 화려하다.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야 군자답다'는 통찰은 이 책의 구조적 토대를 이룬다. 〈사야〉는 '기록된 역사(史)'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野)'의 경계에서, 상반된 요소들이 충돌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정제된 활자와 손글씨, 매끄러운 표면과 거친 질감, 구조화된 책과 비정형의 형태를 한 테이블이 맞물리며,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장을 발로 딛고 사유를 확장했던 김정희의 학문적 태도와도 연결된다. 기억과 기록, 형식과 본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는 이에게 질문을 던진다.
합지은	

	〈자형동원 字形同源〉 〈자형동원 字形同源〉은 서예와 그림이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서화동원(書畵同源)&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활자 디자인이 입체 조형과 뿌리를 공유한다는 관점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과거의 글자는 손의 움직임으로 '씨진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타입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손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글자의 형태는 이제 구조와 비례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시각 조형물로 진화하며, '서화동원'의 사고는 '자형동원'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은 평면 문자에서 공간적 형상으로 이행하는 조형의 흐름을 탐구한다.
양장점	

	〈불이선란도 - 시서화인〉, 〈소봉래 난 - 시서화인〉, 〈서화합벽 - 시서화인〉, 〈세외선향 - 시서화인〉 고무도장은 추사 김정희 사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60년대 서양에서 발명되었다. 돌이나 금속 재질의 전통 인장과 달리, 고무도장은 제작이 간편하고 크기에 제약이 적어 표현 방식에 있어 더 유연하다.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도 전해져 20세기 초반부터 활발히 쓰였다. '시서화'와 전각에 깊은 조예를 보인 김정희가 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면, '시서화인'의 일치를 지향하며 도장에서도 서예적 조형 실험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상상에서 본 작업은 출발하였다. 김정희의 여러 작품에서 필획을 추출해 고무도장으로 제작하고, 주요 작품에서 발췌한 문구를 조합하여 시, 글씨, 그림, 도장이 조형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문인회를 구성하였다.
DDBBMM	